

투데이 칼럼

‘어디 살든 30분이면 OK’... 전북 동부권의 생명선 잇자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 구역을 서부 산업권과 동부 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민의 생존권과 권리의 평등에 관한 엄중한 선언이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111만 동부권 메가시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고도화된 인프라가 동부 산업권 구석구석까지 싹틔울처럼 뻗어 나가야 한다. 필자는 그 핵심 동력으로 30분 초고속 교통망과 거점 통합 의료 체계를 제안한다.

첫째는 권리의 마지노선이자 생명선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시간을 압축하는 혁명이어야 한다. 동부권 전역에서 전주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고속화·직선화하고 주요 거점을 잇는 대심도 터널과 초고속 급행버스(BRT)체계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 30분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상급 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사의 경계선이며 무주장수의 학생이 전주의 교육 서비스를 내 집 앞



이 장 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학교에서처럼 누릴 수 있는 심리적 한계선이다. 30분대 연결이 보장될 때 비로소 111만 명은 하나의 유기체로 숨 쉴 수 있다.

둘째 교통망의 종질에는 반드시 거점 통합병원이 있어야 한다. 초고속망이 뚫린 길 끝에는 전주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거점 병원이 자리해야 한다. 전주의 상급 종합병원과 실시간 연계되는 거점 통합병원은 동부권 주민들에게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실현해 주어야 한다. 교통망이 혈관이라면 거점 병원은 그 혈관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하는 심장이다. 전주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를

동부권 거점 도시들로 과감히 확장하고 복제해야 한다. 셋째지역 의사가 없는 인프라는 겹겹이 깔아야 한다. 길이 뚫리고 병원 건물이 들어서도 그 안을 채울 실력 있는 의사와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위해 ‘전북형 지역의사제’ 도입이 절실하다. 전북 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동부권 근무 조건으로 선발하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의사가 되어 주민 곁을 지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사립(의사)과 길(교통)장소(병원)가 삼위일체가 될 때에만 전북의

의료 자립은 완성된다. 넷째 문화와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메가시티의 완성이다. 30분 접근성이 확보되면 동부권은 더 이상 소외된 오지가 아니다. 전주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교육 콘텐츠가 실시간 공유되는 단일 문화교육권이 형성된다.전주 한옥마을의 브랜드가 무주·진안의 산악 휴양 인프라와 결합하고 전주의 첨단 교육 서비스가 동부권 거점 센터와 실시간 연결될 때 비로소 111만의 통합 전주권은 수도권에 대응할 진정한 체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 구역 개편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초고속 교통망이라는 물리적 통합과 의료교육의 기능적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전북의 미래는 바뀐다. 30분이면 어디든 닿고 어디서든 최선의 진료를 받으며 누구나 전주 수준의 삶을 누리는 전북이 것이 우리가 꿈꾸는 특별자치도의 진짜 모습이다. 이제 변화를 주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북의 생명선을 잇는 대장정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설

기초연금 개편 본격 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 기초연금 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동일 금액을 지급하던 기존 구조를 손질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불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기존 시스템이다.

이는 대통령이 제안한 차등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대통령은 월수입이 많은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향후 증액분부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54만원, 부부가구는 406만4천원이다. 이는 지난해 228만원보다 26만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기준액이 크게 상승한 배경에는 올해 새로 연금 대상에 포함된 1961년생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가 작용했다.

일하는 어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액을 기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이유로 연금을 20%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 역시 위장 이혼 같은 부작위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취약 노인의 생활 개선과 재정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

기쁨누리사회적협동조합 특별전

기쁨누리사회적협동조합 특별전 시회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나부터 시작한다, 다음에서 피어난 예술, 세상 속으로’ 특별전이다. 발달장애인 미술문의체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 주최하고 ‘바보의 나눔’이 후원했다.

요청처럼 생각하는 10인의 작가 캐릭터는 매우 다양하다. ‘몽글작가’는 기쁨이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팬이 많다. ‘감성작가’는 꽃을 좋아하는 만큼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시크작가’는 작품이 섬세하고 표현력이 돋보인다. ‘사랑작가’는 기쁨작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많은 작가다.

‘남단작가’는 꿈꾸며 항상 열 그림 마무리 또한 정리까지 도와 주는 팬클럽이다. ‘공주작가’는 공주 글씨가 캔버스 위로 짙게 그려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첫 번째 놀랐다. ‘발랑작가’는 언제 어디서든 에너지 넘치고 물감을 누구보다 좋아한다. ‘빛의 작가’는 기쁨이의 보물이며 천재작가다. ‘엠펙작가’는 대화가 어렵지만 그림이 완성되면 이야기들을 가득 메모해서 전해준다. 꿈의 작가는 기쁨이와 처음 만났을 때 피터팬을 좋아해서 첫 작품으로 텅커벨을 그렸다. ‘나름에서 피어난 예술꽃’에 애 걸었던 박수를 보낸다. 발달장애인 미술문의처에서는 년 5회 지역 문화공간에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다.

기자수첩

새만금 산단 건강 책임지는 상수도 배수지, 토지오염 걱정 없는지?

군산의 서부지역 특히 산업단지 식수를 공급하는 오식도동 상수도 배수지에 불법시설품이 들어서고, 이곳에서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곳은 군산시 소유의 토지이다. 군산시의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과 여기에 따르는 인력 공백을 이용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 또한 이곳은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이유로 철저한 출입을 통제하고자 설치된 접근금지 펜스마저 임의 제거한 상태이고, 임의로 옹벽 또한 설치한 상태이며 이곳을 통행하고자 버섯이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이를 오르내리는 계단마저 설치돼 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이 이곳이 마치 개인 소유의 토지로 오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곳 배수지의 목적은 공단 인근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수로 제공되고 있어 이곳의 토지 오염은 이를 사용하는 시민의 건강 또한 열려되는 부분이 있다.



김 만 호
지정부
군산주재

각종 퇴비와 채소를 경작하고자 살포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토지 오염 발생 또한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곳은 수많은 군산공단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식수원의 시작점이므로 군산시의 행정은 최대한의 행정력으로 빠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으로 자행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공공은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이는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며, 관청의 행정력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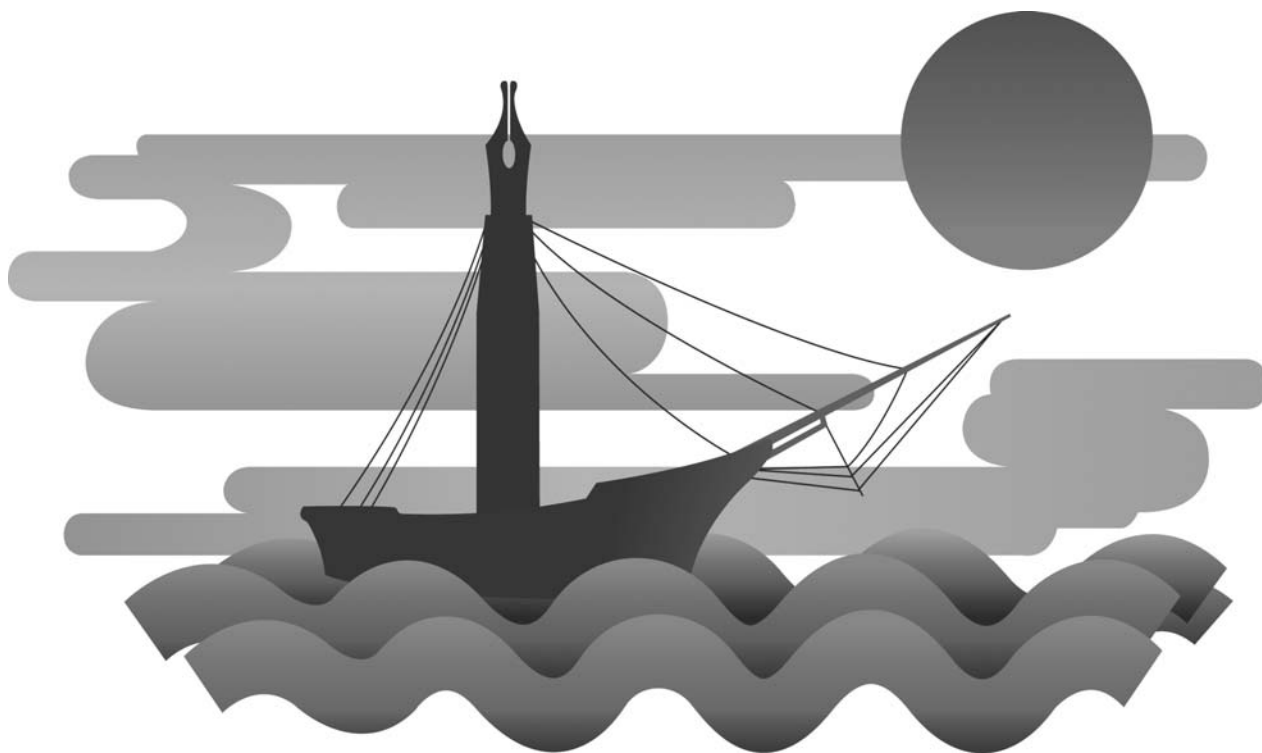
군산의 한 상수도 배수지에 들어선 시설물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